

진도읍 시가지 전봇대 올해 모두 사라진다

동외삼거리~조금사거리 1.6km 구간

50억 들여 연말까지 전선 지중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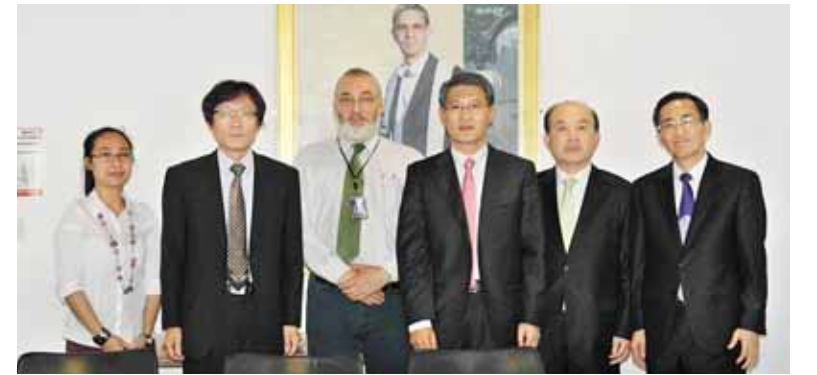
진도읍의 미관을 가로막았던 전봇대가 올해 모두 사라진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시공사와 감리자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50여억원을 투입,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이 시가지 내 전신주를 없애고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구간은 진도읍 동외삼거리~조금사거리 1.6km이다. 이 구간에 설치된 전신주 60개가 모두 철거됨에 따라 군은 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 안전도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우선 도심 거리의 장애물이 사라져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신주가 매설되고 보도블럭 및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면 도시미관이 좋아져 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교통통제가 가능한 4개 구간으로 구분하는 등 신속한 공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읍 시가지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시·목포대·英 아버딘시·로버트고든대 MOU

목포대(총장 고석규)와 목포시(시장 정종득)가 영국의 로버트고든 대학 및 아버딘(Aberdeen) 시와 국제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목포대는 30일 "목포대 박순영 LINC 단장과 목포시 주동식부시장을 주축으로 합동방문단이 지난 20일 부터 6일간 영국 아버딘(Aberdeen)에서 열린 올 에너지(ALL-Energy) 박람회 및 국제무역세미나에 참석한 뒤 아버딘 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아버딘 대학 등 영국 대학과의 MOU 체결,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 등 순조롭게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형진 서남권청정에너지연구원장, 김경기 목포시 투

자총장과, 이상록 SM소프트웨어 대표가 동행했다. 방문단은 목포시항을 배후항만으로 개발하고 있는 목포시가 해양에너지 선진도시인 영국 아버딘에서 열리는 2013 영국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에 참석해 신재생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해외시장관리를 모색 및 시장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국제무역세미나에 참석한 방문단장 박순영 교수는 목포시항의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서의 역할 및 서남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목포포 지역산업체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홍보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29일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에서 봄비를 머금은 금계국꽃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한 여성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셋노란 금계국 배경으로 한 컷

장애인 갈고 닦은 끼 맘껏 발휘

전남도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13 전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29일 목포 공업고에서 개막, 31일까지 3일간 열전을 벌인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기능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목포서 기능경기대회 31일까지 목포공고서

고용노동부와 전남지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대회 첫날인 29일 오후 목포 공고에서 기능 장애인 343명을 비롯해 보호자 및 관계자 등 총 600여명이 모여 개회식을 가졌다.

대회 둘째 날인 30일에는 총 34개 종목 중 컴퓨터 활용능력 및 제빵·제과 등 총 19개 종목 343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본 경기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기술총평과 함께 우수 장애인을 시상하고 폐회한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오는 8

월 기능연수를 실시하고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남도 대표선수로 참가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17개 종목에 출전해 나전철기에서 금상을 받은 등 총 7개 분야에서 7명이 입상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영암서 내달 1~2일 '월출산 국악경연대회'

영암군은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사)덕산전통예술진흥회 주최로 '2013 월출산 전국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신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5개 부문에 걸쳐 관소리, 무용, 기악 3개 종목에 전국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다. 영암군은 가야금 산조를 창조한 악성 김창조 선생(1865~1919)의 고향으로 오랜 전통에 맞춰 국악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한말·일제강점기 가야금 산조의

명인으로 시나위 가락에 관소리 가락을 도입해 가야금 산조의 틀을 만들었으며 김창조 가락의 가야금 산조는 한성기, 최옥산, 김병호 등이 그 맥을 잇고 있다. 강현복 이사장은 "전국의 명창과 명인 명부로 신인들을 발굴·육성하고 청소년에게 전승해 국악을 세계화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영암군이 가야금 산조의 본향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전북

혁신도시 이전 농업기관 인력수급 비상

연구보조·계약직 등 1600여명 부족 예상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올 농업진흥청 등 농업 관련기관의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도내로 옮겨올 농촌진흥청 본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의 석·박사급 연구보조인력 356명과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보조인력 1892명 중 동반이전을 하지 않는 인력이 1648명으로 잠정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부족한 인력은 석·박사급 연구보조인력 179명, 무기 계약직 169명, 기간제 계약직 등 1천300여명이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이 있는 이들은 자녀 교육과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전북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인력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일 도와 소속 기관, 도내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의 입장 정리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정확한 필요인력 현황을 수시로 파악, 이를 대학에 전달하고 이들 농업관련 기관과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약을 맺기로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완주군 통합하라”

안행부, 완주군 주민투표·전주시 시의회 의견청취 결정 권고

안행부통합부가 30일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 통합을 권고했다. 안행부는 이날 찬반이 팽팽한 완주군에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찬성 여론이 높은 전주시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투표나 의견청취는 6월 말까지 해야한다. 안행부의 통합권고는 지난해 4월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통합에 전격 합의, 공동으로 정부에 통합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공식 답변이다. 안행부가 통합을 권고함에 따라 완주군은 이날 군민에게 이를 공표했다. 이어 군은 일주일 이내에 주민투표 실시와 장소 등을 공고(발의)하기로 했다.

군민도 주민투표에 대해 찬반운동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찬반 운동은 등록된 단체나 투표권자에 한정되며 발의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는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은 사전투표일(투표일 5일전부터 이틀간)이 정해지면 이 때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완주군 선관위도 주민투표가 공고되면 관내 33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주군의 통합 여부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번 주민투표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적용돼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남에 따라 투표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순창, 폐가전제품 가정 방문 수거

순창군이 무거운 가전제품 처리에 애로가 있었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폐가전제품을 직접 가정까지 방문해 수거하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촌지역 거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무거운 가전제품 처리에 불편이 따르고, 또 값나가는 부품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해

체로 환경오염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 편의제공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 같이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폐가전제품을 마을회관에 가지고 오면 순창군이 무료로 수거해줬으나, 처리에 애로가 있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는 직접 가정까지 방문해 수거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 한옥마을공영주차장 운영 연장

전주시가 전주시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옥마을공영주차장(옛 코아아울렛주차장)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주한옥마을공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왔으나 운영시간 이후 관리인력의 부재로 인한 차량파손, 이중주차로 인한 차량이동 불가능,

주차다툼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하루 주차요금은 종전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 소유자 미상 방치 선박 6척 처리

부안군은 30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소유자 미상의 방치 선박 6척(12t)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방치 선박들은 조업여건 악화와 어업인의 노령화 등 조업 포기로 발생했으며 연안 항·포구의 혼란을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간 관리가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해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또 각종 오염과 연료유류 누출 등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으며, 부안군은 최근 5년 동안 130여 척의 방치선박을 처리했다. /부안=장재용기자 jiy0681@

전북교육청, 어울림학교 18곳 지정

전라북도교육청은 30일 "농어촌학교를 살리는 '작은 농어촌학교 희망 찾기' 일환으로 도심과 자연이 하나 되는 어울림학교 18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학교는 군산 옥구초, 익산 계문초, 김제북초, 초저초, 완주 남관초 등 초등학교 17곳과 장수 계북중 등이다.

어울림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폐합에 직면한 농어촌학교를 살리도록 도심학교와 공동통학구역으로 하나로 묶어 학생들의 전·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도교육청은 6월에 초등학교 3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산림 경제적·환경적 가치 자원 육성

부안, 6억 들여 '숲가꾸기 사업' 추진

부안군은 30일 "산림을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부안지역 일원 710ha 규모의 산림에 국비 3억1000만원 등 총 6억2000만원을 들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670ha 규모의 산림에 있는 큰나무 속아베기, 산물수집 등 큰나무 가꾸기를 진행하고 40ha의 조림지의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지가꾸기를 실시한다. 숲가꾸기는 입목이 과밀해 부피 생장이 늦어지고 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취약한 인공 조림지나 천연림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속아베기 등 간벌작업을 실시해 생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환경적인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림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은실가스 감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산림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며 "숲가꾸기 사업은 우수한 목재자원을 육성하고 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만드는 중요한 산림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장재용기자 jiy0681@



“복분자 초콜릿 이렇게 만들어요” 전북 고창군 복분자연구소에서 유치원생들이 복분자로 초콜릿을 만들고 있다. 복분자연구소는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의 홍보를 위해 복분자로 초콜릿과 과자, 음료 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